

‘季리스크 해소’에 與 당권 레이스 가열

친윤 vs 비윤 계파 대결?...안철수·나경원은 ‘비윤’ 유승민 때리기

‘이준석 리스크’를 떨쳐낸 국민의힘에 차기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와 동시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레이스의 개막이 예고되면서 몸풀기 수준이던 당권 주자들이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고, 이들 간의 물고 물리는 신경전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현재 구도는 일찌감치 전대 출마 의사 를 밝힌 김기현·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이 장외에서 출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조경태·윤상현 등 당내 중진 그룹도 기회를 엿보는 형국이다.

여기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도 잠재적 후보군이다.

이들은 공통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치로 내걸고 2024년 총선 승리를 최대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각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다양하고 상이하다.

우선 윤 대통령과 관계에 있어 ‘윤핵관’ 그룹은 물론이고 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친윤(친윤석열)을 표방하고 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고, 조경태 의원 등도 비윤(비윤석열)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친윤계는 가치분 사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연일 비판했지만, 비윤계는 이 전 대표를 두둔하면서 당의 대응을 문제 삼는 등 입장차를 드러내 왔다.

이념 성향이나 정권 성공 및 총선 승리를 위한 방법론, 당내 지지 기반 등에서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오른쪽)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 9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 24 새로운 미래 두 번째 모임인 ‘경제위기 일본 혁신생태계로 극복하자!’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당권 레이스가 진행되며 주자 간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경우 이번 전대가 ‘친윤’

대 비윤’의 계파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가처분 기각 및 윤리위 추가 징계로 상

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이름값’이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비윤계와 관계 설정도 주목된다.

‘전대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주자 간 견제도 본격화됐다.

김기현 의원은 10일 SNS에 “차기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대선 가도에 유리한 당내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무리한 조치를 할 가능성 때문에 당내 통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썼다.

대권 도전 가능성에 점쳐지는 안철수 의원은 물론 유승민 전 의원까지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송원기 기자

Photo News



강원경찰, 10월 내내 단속…여객자동차법 준수 여부도 점검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단풍철 관광버스 운행증기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고자 10월 한 달 동안 관광버스 법규위반행위를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대열운행부터 지정차로 위반, 차량 내 음주가무, 전 쟁석 안전띠 미착용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행위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코레일, 가을철 수도권 전철 질서유지 특별합동단속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1일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과 합동으로 ‘마스크 바르게 착용하기’ 등 수도권 전철 내 기초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과 음주소란, 구걸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계도 활동을 벌이며 상품 판매와 광고물 부착 등 불법 상업 행위 단속도 동시에 진행한다.

/ 배민성 기자

특허청, 15일 부산 BTS 공연장서 위조상품 단속·계도



특허청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

Busan)가 열리는 오는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일대에서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단속과 계도 활동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홍보활동도 펼친다.

특허청은 10월 한 달간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하이브, SM, JYP, YG 등 연예 기획사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을 점검하

고, 단속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한 기획 수사도 할 예정이다.

김영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주요 연예기획사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협력해 상표권 등 침해행위 감시와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TS가 소속된 하이브 사는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구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허청과 협력해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홍민규 기자

ESG

ESG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좋아지게

농촌과 도시를 더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더 좋아지게

자연과 기술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이 땅의 미래가 더 좋아지게

기업과 국민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더 좋아지게

NH농협이 앞장섭니다

100년 농협

ESG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좋아지게

농촌과 도시를 더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더 좋아지게

자연과 기술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이 땅의 미래가 더 좋아지게

기업과 국민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더 좋아지게

NH농협이 앞장섭니다

100년 농협

ESG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좋아지게

농촌과 도시를 더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더 좋아지게

자연과 기술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이 땅의 미래가 더 좋아지게

기업과 국민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더 좋아지게

NH농협이 앞장섭니다

NH 농협

“아픈 아이 맡기세요”…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돌봄 지원

성북센터 ‘일시돌봄·병원동행’ 시범 운영…간호 인력 상주

서울시가 공공 돌봄시설에서 아픈 아이를 잠시 맡아 돌봐주거나 병원에 데려가 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7일 성북구 종암동(회기로3길 17)에 개관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에서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 등에서 갑자기 아픈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키움센터에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다.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간호 인력과 돌봄 요원이 전용 차량으로 병원에 데려가 주고, 센터 내 아동용 병상이 갖춰진 공간에서 보호자가 올 때까지 돌봐준다.

일시돌봄·병원동행 지원은 올해 8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핵심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성북 키움센터를 시작으로 운영 기관을 내년 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에 개관한 거점형 키움센터는 시가 성북구 소유 공공건물을 무상 임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상 2~4층에 연면적 1천 170㎡ 규모로 조성했다. 아픈아이 일시돌봄 공간을 비롯해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할 다목적 공간, 요리·미술·음악 등 예체능 활동공간 등으로 꾸몄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 아동

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다고 시는 전했다. 평일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7시, 방학 기간에는 오전 8시~오후 8시다.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용 신청은 전화(☎ 02-6956-7033)나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icare)로 하면 된다. 앞서 노원·도봉구, 동작구, 종로·서대문구에서 운영 중이다.

/ 권혁수 기자



3년 만에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린 8일 오전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탐방객들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3년만에 빛장 푼 무등산 정상

강기정 광주시장 등 2만명 천·지·인왕봉 풍광 감상

무등산 정상이 3년만에 개방돼 탐방객들로 가득 찼다.

광주시는 8일 서석대 주상절리대에서 군부대 후문을 지나 지왕봉, 인왕봉을 거쳐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 구간을 개방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선선한 바람까지 부는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탐방객들은 환한 표정으로 산을 올랐다.

이날 2만여명이 무등산을 찾았고 이 중 5천명 이상이 정상구간을 오른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했다. 탐방객들은 광주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장관재에 멈춰서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여유를 즐겼다.

지왕봉 옆 전망대에서는 무등산에 둘러싸인 광주 시가지를 조망하면서 연신 감탄하고 비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정상에 올라 ‘무등산 편지’를 낭독하며 공군과 상시 개방 협의 상황을 알렸다. 광주시는 공군 등과 연말까지 상시 개방 협의를 마쳐 내년 1월 1일 새해 일출을 시민들이 무등산 정상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탐방객들은 무등산 정상을 56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릴 수 있다는 소식에 손뼉을 치며 반기기도했다. / 최준용 기자

새 국어 교육과정에 ‘순우리말’ 들어갈까…“다양한 방안 모색중”

2015년 교육과정부터 성취기준서 빠져

새 국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순우리말(토박이말)을 넣어야 한다는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팀은 2022 개정 국어 교육 과정에 순우리말 교육을 성취기준 일부나 해설, 고려사항 등으로 넣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2009년, 2011년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는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엔 이 내

용이 빠졌고, 최근 공개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지난 1일 토박이말바라기, 전국초등국어교모인, 전국국어교사모임 등 교원과 한글 단체들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공문을 보내 개정 교육과정에 순우리말 관련 성취기준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어 과목 공청회에도 참석해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개발팀은 순우리말 교육 내용을 ‘성취기준’ 일부에 넣는 안, ‘성취기준 해설’이나 ‘영역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에 명시적으로 보완·수정하는 안을 우선 고민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중에서 성취기준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교과서 제작이나 교과목 반영 등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 다만 정부는 최근 학

생들의 학습량을 좌우하는 성취기준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과정을 설계하고 있는 데다 새로운 분야의 성취기준도 추가되고 있어 성취기준을 다시 추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백수민 기자

‘경기도민의 날 주간’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경기도는 ‘도민의 날(10월 18일) 주간’인 17~23일 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 35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환급액은 문화시설 이용료 결제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1만5천원이다.

문화시설이 소재한 시·군의 지역화

폐 카드에 충전해주며 현장에서 신규 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환급받은 지역 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민의 날은 ‘경기(京畿·서울의 외곽지역)’라는 지명을 쓰기 시작한 연

도인 1018년(고려 현종 9년)을 끊는 10월 18일로, 2018년 정명(定名) 1천

년을 맞아 처음 제정됐다.

/ 이승호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

레미콘업계 조업중단 현실화하나

내일 시멘트업계와 재협상

시멘트 가격 인상에 반발하면서 조업 중단을 예고한 중소 레미콘업계가 7일 시멘트업계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두 업계는 8일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소 레미콘업계와 시멘트업계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재로 서울 강남구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만났다.

중소 레미콘업계는 시멘트업계에 하반기 가격 인상분을 내년 3월 1일자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업체들은 원자잿값 인상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 t당 시멘트 가격을 17~19% 인상했고, 하반기에도 또 한 차례 가격을 인상하면서 현재 t당 시멘트 공급 단가는 10만5천~10만6천원 수준으로 올랐다.

시멘트사가 올해만 가격을 최대 35%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시멘트 가격 기습인상 규탄대회에서 중소레미콘업체 대표 등 참가자들이 가격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올리면서 원가 부담이 급등하자, 중소 레미콘업체에서는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중소 레미콘업체로 이뤄진 한국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오는 10일

부터 무기한 조업 중단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경우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서 조업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앞서 중소 레미콘업체 대표 700여명은

지난 8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시멘트 가격 인상 철회를 촉구했고,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 김강우 기자

단속·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속옷 착용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상태에서 촬영 당한 여성 이 7명이었고, 샤워 중 알몸 상태로 찍혔다고 답한 여성도 있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노동자해방 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등은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의 신체 촬영물 제공 행위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떤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여성의 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 21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성매매 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출입기자단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도자료로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잉금지원칙과 ‘경찰 수사 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인권위는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7월 20일부터 한 달간 성매매

/ 양준호 기자

취임 100일 김동연, ‘옛 공관 도민 이관·맞손동행’ 행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현판식(도민 이관식) 및 맞손 동행’ 행사 를 열었다.

도담소는 ‘도민을 담은 공간’이라는 의미로 도민 공모전을 통해 이름을 선정했

다.

행사에는 공모전 수상자와 온라인 패널, 꿈나무 기자단, 발달장애인 공연단 등 15명이 참석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김 지사는 “제가 꿈꾸는 경기도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학업에 대한 자유에 제한을 받는 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도담소 현판식은 정말 뜻깊은 행사”라며 “도민과 소통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경청하고, 도담소 이름 그대로 도민들의 뜻을 담고 도민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도정을 펼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사에서는 소외지역으로 불리는 파주 해미루촌 주민들과 이원 생중계 현장 소통도 진행됐다.

현판식 후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인근 수원화성 돌레길을 걸으며 나들이 나온 도민들을 만나 민심을 경청하기도 했다.

/ 정지훈 기자

‘검언유착’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 불응하다 구속



윤우진 前세무서장 관련 재판 수개월 불출석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지모씨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응하지 않다 끝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최대건 부장검사) 산하 불출

석 피고인 검거팀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지씨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최근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석 명령에 계속 불응하자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구속된 지씨는 앞으로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 김유정 기자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054-280-4170
대표번호 1577-1000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포항시

與,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발의 완료…“소속 의원 전원 참여”

주호영 “민주당 정부에서도 의원발의 형태로 정부조직법 처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하기 위한 회상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국
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
로 한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
은 법안을 ‘당론’ 성격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주호영 원내대
표 대표발의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조직 개편
‘속도전’을 위해 정부 발의 대신 의원 입법
을 택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
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
는 한편, 생애주기 정책 및 저출산·고령
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전략적 추진체계
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
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
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
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가부를 폐지하
고 기능을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
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
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
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소
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상 의
원총회를 열어 개편안 내용을 논의했다.

화상 의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
관이 직접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

을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은희 김미애 의원 2명이 ‘여가부 폐지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니 피해자 보호에
충실히 하는 안을 내달라’는 의견을 냈고,
그 외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선 의총 모두발언에
서 “정부가 야당에도 설명했는데 야당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일과 재외동
포청 신설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여가부 기능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와 기능 조정이
우리 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공약 이행
차원과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을 정부가 냈으니까 가급적 도와
주고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안 추진이 이전보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보다 신속한 처리
를 위해 정부 발의가 원칙적으로 바람직
함에도 의원 발의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이전 3차례의 경우를 보니
민주당 정부에서도 모두 의원 발의 형태
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 같다”
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이순신의 ‘정중여산’ 인용한 이준석

“어느 누구도 탈당 말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7일 폐
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勿令妄動 靜重如山
(불령망동 정중여산)”이라고 적었다.

이날 새벽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
원권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
은 뒤 이 전 대표가 낸 첫 메시지다.

이 전 대표가 인용한 ‘불령망동 정중
여산’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중
처음으로 출전한 옥포해전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당부한 말로 알려져 있다.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수세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임진왜란의 첫 해전에
임하는 이순신 장군에 빗대 향후 정치
적 재기의 결의를 다진 것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
고”라고 언급,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에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도 나
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3·9 재
보궐선거 공천심사 과정에서 당과 갈
등을 빚은 김재원 당시 최고위원이 무
소속 출마 의사를 밝히자, 자신의 페이
스북에 ‘불령망동 정중여산’이란 문구
를 올리며 김 최고위원의 탈당을 만류
한 바 있다. / 정진양 기자

이재명, 한미일 동해 훈련에 “극단적 친일 국방…정부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한미
일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
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
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자
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지
만’이라고 말한 것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
가 걱정”이라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다.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
치 않는데,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면서 “국
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
지전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직원 3명 자택 등 강제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
는 검찰이 네이버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
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
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6
일 네이버 직원 등 3명의 자택과 휴대전
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6일 네이버를 압수수색한 검
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PC 등에서 증

거 인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직원은 성남FC 후원과 신사옥 건
설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
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
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
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
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삼업 용
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 손해원 기자

“자연이 수놓은 보물” 관광 도시 순창

산길을 걷고 바위길을 오르고 구름다리를 건너고
일상에 쉼표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순창이 있습니다



<https://www.sunchang.go.kr>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AI의 미래가 궁금해

AI시대를 이끌어 갈 우리의 학생과 청년들이
더 멀리 보며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LG의 다양한 AI교육프로그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 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LG

강기정 광주시장 “군공항 개발제한구역 총량 관리 전환” 건의

“지자체 광역계획권별 총량→정부 국책사업 총량으로 관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군 공항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의 국책사업 해제 가능 총량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광역계획권별 총량과 정부의 국책사업 총량으로 구분된다.

광주 군 공항 주변은 현재 광역계획권별 총량에 포함돼 이 일대를 해제할 경우 총량 제한에 걸려 정작 신규 산단 조성 등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워진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같은 국가 안보 정책 관련 사업은 국책사업 해제 가능 총량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계획권별 총량 활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 노승만 기자

‘행방불명’ 사유 병역 미이행자 967명 재난지원금 수령

‘행방불명’으로 군대에 가지 않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들이 1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상당 인원을 추적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설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자원이 모자라는 상황에 의무자 관리가 심각하다”며 “행방불명으로 병역 의무를 안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원이 967명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에 “967명이 (재난지원금)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 인원을 추적해서 732명을 색출했고,

현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왜 나머지를 찾지 못하느냐는 설 의원의 질문에는 “행정안전부, 교정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행방이나 정보를 받아 수사하면 빠른데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 제공을 못한다고 한다”며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려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또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뿐 아니라 올해는 산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았다. 그 사람들까지 해서 현재 계속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은수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박진, 캐나다와 14일 외교장관회담…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양국관계 강화 방안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양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달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의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또 ▲규범에 기반한 국제체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 수호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경제 번영과 경제안보 증진, 공급망·핵심광물·과학기술혁신 협력·교역·투자촉진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 에너지 안보 지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보건 및 문화 파트너십 심화 등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 권유희 기자

육사에 ‘6·25 참전’ 美사관학교 졸업생 추모비 추가 건립



육군사관학교와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챔터는 7일 교내 ‘웨스트포인트 추모공원’에서 14명의 6·25 전쟁 전사자를 기리는 추모비 제막식을 열었다. 추모행사 후 전성대 육군사관학교장(왼쪽에서 다섯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졸업생들의 추모비가 서울을 육사 캠퍼스에 추가로 건립됐다.

육군사관학교와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챔터는 7일 교내 ‘웨스트포인트 추모공원’에서 14명의 6·25 전쟁 전사자를 기리는 추모비 제막식을 열었다.

14명은 1946년 미국 육사 졸업생 가운데 6·25전쟁에서 전사한 이들이다.

6·25전쟁 당시 1945년부터 1951년 사이 미국 육사를 졸업한 7개 기수 초급장교들의 희생이 가장 커다고 육사는 전했다.

육사와 코리아챔터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6년 교내에 웨스트포인트 추모공원을 조성했다.

이번을 포함해 5개 기수의 추모비가 건립됐고, 내년도 정전 70주년이자 한미동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식약처장, 감기약 대란 우려에 “쓸 카드 다 써”…약값인상 검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감

기약 수급 불안정 대책으로 약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말했다.

오 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기약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대한 대책이 있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오 쳐장은 감기약 수급과 관련해 “해열진통제 중 특수 조제용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약품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인 ‘약가 연동제’ 적용을 8월 원활화했지만, 이는 감산은 막아도 적극적 증산을 유도하진 못하는 정책으로 생각한

다고 오 쳐장은 설명했다.

오 쳐장은 “약가 조정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약가가 오히려 옛날보다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제약사 해열진통제 생산 참여와 증산을 독려하기 위해 약값 인상 등 행정·재정지원 방안을 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쳐장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현재 51원인데 일반용은 한정당 200원이기 때문에 51원의 약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수호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202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SK와 함께
지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쏘-스윗한 일을 시작해볼까요?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Earth with Us(어스윗어스) 캠페인

지구와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다른 힘이 되는
그런 달콤한 세상을 위해
SK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ESG로
세상 행복하도록

자구(Earth)를 위해 우리 모두(Us)가
밀상 속 실천으로 함께하는 스윗한 행보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어스윗어스 캠페인을 확인하세요

“영향 제한적, 심사는 부담” 삼성·SK, 美반도체 규제 긴장



미국, 고강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고강도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 했다. 미국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치가 향후 미칠 영향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따져 보느라 분주하다.

일단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 [000660]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외를 허용한 것이어서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 일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개

별심사 등 절차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 을 내지는 않았지만 향후 파장 등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 한 장비의 중국 판매를 사실상 전면 제한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소유한 외국 기

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시안과 수저우 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미 로이터 등 외신에서는 중국에 공장을 둔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은 별도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이는 허가 가능성성이 높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당장은 큰 차질 이 없을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 DS부문장인 경계현 대 표이사 사장은 지난 9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에 대해 "정부가 할 일 기업이 할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서로 윈윈 하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 장도 5일 미국에서 열린 '삼성 테크 데이' 미디어 브리핑에서 "(칩4 동맹은) 정부 간 논의 사안"이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

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으로부터 개별 허가(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청 후 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달렌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새로운 통제 조치는 미국 기업 이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중국 반도체 기업을 현재 기술 수준에서 다 끓어버리는 조치"라고 말했다.

/ 신재일 기자

비은행권도 7조원 ‘이상 외화송금’

NH선물서 50.4억달러 ‘이상 거래’ 포착

NH선물에서 7조원대의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다른 모든 선물사와 증권사에 대해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이미 신한은행 등 은행권에서 이상 외화 송금이 72억2천만달러(10조1천 억원)에 달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상황에서 비은행권인 선물회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발생해 ‘김치 프리미엄’ 사태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달러(7조1천500억원)로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위탁 계좌를 통해 외국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한 액수다.

금감원은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외한 업무와 자금세탁 방지업무 취급에 있어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선물사와 증권사도 이와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상 외화송금액 규모는 50억4천만

/ 정영택 기자

안심전환대출 13일간 2조5천309억원 신청



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6일부터 17일까지는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한다.

/ 채민서 기자

“네이버, 공정위 동의의결 악용해 매출 늘려…카카오도 면죄부”

한기정 공정위원장 “미진했던 부분 사과…앞으로 철저히 할 것”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해 매출을 늘린다는 지적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네이버 와 다음(카카오)에 동의의결을 시행하기

로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약 300억 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면서 “네이버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독려한 끝 끝에 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네이버와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200억 원을 들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사업비 300억 원을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점검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 재단이 여러 이유를 들며 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논란과 관련한 공정 위의 조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점검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사과하겠다”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흥 대표의 국감장 출석은 15년 만에 이뤄졌다. 그는 2007년 네이버(당시 NHN) 부사장 신분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 배수빈 기자

IFEZ, Global Business Frontier
**탄탄한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NOVATIVE GROWING CITY

all ways INCHEON

“입구 길 터주세요”…‘불금’ 강남 클럽 불시 마약 단속

7일 오후 10시 15분,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의 유흥업소 밀집 골목.

한 클럽에 경찰과 소방관 등 여러 명이 일시에 진입하자 근처에서 ‘불금’을 즐기던 시민들이 순식간에 클럽 입구 주변을 에워싸며 응성거렸다.

“이파 여기 가려 했는데 무슨 일이지?” 라며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범죄인가 혹시 마약?”이라며 호기심을 드러내는 반응도 있었다.



7일 밤 서초경찰서·서초소방서·서울시청·서초구청 공무원들이 협동 점검 및 단속을 위해 서울 강남의 한 클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협동단속반은 최근 늘고 있는 마약 및 물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클럽에 들이닥친 이들은 서초경찰서와 서초소방서, 서초구청, 서울시청 직원 등 총 51명으로 구성된 합동 마약 단속반이다. 이들은 이날 하루 관내 대형 클럽 4곳을 불시 단속했다.

김한곤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은 단속 시작 전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공터에서 단속반을 4개 조로 나눈 뒤 조별로 작전을 지시했다.

김 과장은 “최근 3개월 동안 클럽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각 조는 점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고 당부 했다.

서초경찰서는 최근 관내 클럽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경찰은 아울러 클럽에서 배출된 쓰레기 등을 확인해 실제 마약류 투약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서 이번 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이 차례로 클럽 내부로 들어가자 입구를 지키고 선 건강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줬다. 평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체념한 듯 시선을 피하는 경호원도 있었다.

단속이 시작되자 내부는 일순간 어수선해졌다. 일부 손님은 뒤를 돌아보며 도망치듯 클럽을 빠져나오기도 했다.

자정을 넘겨 2시 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단속에서 실제 마약 유통이나 투약 등의 불법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단속반은 이날 마약 범죄 외에도 불법 카메라 설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안전시설 관리 상태 등도 함께 점검했다.

/ 송종호 기자

창원서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학술강연·문화전시 등 진행

경남 창원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전국 도서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술강연·문화전시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서관 관련 최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창원시 등이 후원한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현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시 일상으로! 함께하는 도서관’을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전국 도서관 직원 등 3천500여명이 이 기간 창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46개의 학술강연에 더해 도서관 첨단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도서관문화전시회도 함께 선보인다.

창원시는 대회 첫날인 12일부터 이를 간 특별 버스를 운영해 도서관 우수 성과를 홍보한다.

/ 서정미 기자

새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정보과목 수업시수 확대 명시 검토



‘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총론의 성격을 고려해 기존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학과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통합과학 과목을 축소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역시 타 계열 특목교과의 형평성, 선행학습 우려를 감안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보과목 수업시수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타 교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안을 유지하되

앞서 정부는 현재 34시간인 중학교 정보과목 수업시수를 68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育부는 올해 12월 새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한다.

교育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8일 오후 한국교원대학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앞서 ‘국민 참여소통채널’을 운영해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이 가운데 총론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다.

‘생태교육’과 ‘노동교육’을 교육목표에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연구진은

/ 변수호 기자

여가부 폐지 과정 ‘안갯속’…“행안부와 소통 기록 안 남겨”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

김현숙 장관 “중간 과정 중요하다고 생각 안해”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여가부에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행안부와의 협의·소통 실적을 묻자 여가부는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니므로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또 “국무조정실과는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6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묻자 “행안부 장관이나 담당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가부의 설명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소통 내용은 알 길이 없을 상황이다.

김 장관은 같은 날 “여가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부처는 뭐라고 했는지 중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종 결과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전략추진단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수렴한 의견도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이 회의체 속기록 역시 남기지 않았다.

민주당 여가위원회에게 제출한 전략추진단 간담회 결과는 회의마다 주요 내용이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는데 그

쳤고, 참가자 성명은 성만 드러내고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전문가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성계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강조하던 김 장관의 입장과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권수현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여론을 듣겠다고 했으면 어떤 의견을 바탕으로 지금의 계획이 나왔는지 설명해줘야 하는데, 결과만 내놓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 황희정 기자

강경젓갈과 상월고구마의 만남!

2022. 10. 12.(수) - 16.(일)

젓갈김치담그기, 고구마맛깔체험, 젓갈특가할인판매전 등

공식유튜브

강경맛깔젓TV

2022
강경
젓갈축제
Gangjeong
Salted Seafood
Festival



• 주최



• 주관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충청남도



순창군



문경시

www.nonsan.go.kr/eggfestival/



세상을 바꾸는 금융

세상을 바꾸는
K-BAG
플로깅 프로젝트

“달리기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모두 모두 건강해져요”

플로깅이라면 쉽고 재미있게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환경 운동가가 되는 이 멋진 운동의 확산을 위해
KB도 함께 달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실천으로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AG 플로깅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플로깅을 위한 가방 'K-BAG' 및 '전용 플로깅 kit' 제작, 배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키는 플로깅 문화 확산을 위한 <K-BA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로깅이란? 이식을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것을 말합니다

KB 금융그룹

美, 반도체장비·AI용 칩 對中 수출 통제

AI·슈퍼컴퓨터 칩엔 화웨이식 제재…“미국 안보·외교이익 보호”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기술을 기준으로 중국을 겨냥해 포괄적이면서 고강도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슈퍼컴퓨터용 반도체칩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화웨이식 제재도 포함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수퍼컴퓨터용 반도체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 통제 및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두 건의 규칙으로 발표된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컴퓨터 내 반도체칩

그러면서 “중국은 이 정치와 능력을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첨단 무기

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다만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이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 송민서 기자



자포리자 원전서 경계 근무 중인 러시아 군인

IAEA “자포리자 원전에 또 포격…한때 비상발전 의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속에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커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폭탄이 떨어져 전력선이 파손되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7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전날 자포리자 원전 외부 시설에 포격 피해가 발생하면서 150kV 외부 전력선이 손상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고 밝혔다. 해당 전력선이 끊어지자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1시간30분간 가동하면서 원자로에 전원을 공급했다고 IAEA는 설명했다. 원전과 연결된 전력선 파손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원전 내 냉각 시스템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면 원자로 과열로 핵연료봉 달발이 녹는 노심용융(멜트다운)이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중대 사고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자포리자 원자로 6개는 예상 수리를 진행 중이다. / 배해미 기자

중국 7중전회 내일 개막…‘시진핑 대관식’ 마지막 준비

당대회서 통과될 당헌 개정안 토론…시 ‘핵심’ 지위 공고화 전망

‘시진핑 대관식’을 최종적으로 준비할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가 9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8월 30

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대회)가 10월 16일 개막하고, 그에 앞서 10월 9일부터 7중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산당 ‘최고 영도기관’인 중앙위원회

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 대회 사이에 7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19기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170여 명 등 370명 이상이 모여 비공개리에 개최하는 7중전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당 대회를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회의에서는 16일 개막하는 20차 당 대회 개최와 관련한 세부 일정을 결정하고, 당장(黨章·당헌) 개정안 등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다. 그와 더불어 지난 5년간 당의 성취를 정리하고 현재의 정세와 당의 임무에 대해 분석 및 논의한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당 총서기인 시 주석은 20차 당 대회에서 할 업무보고 초안을 7중전회 때 중앙위원들에게 설명한다. 이어 중앙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보고

서에 대한 심의를 20차 당 대회에 제청하게 된다.

당장 개정안에는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강조하는 이른바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새롭게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명보 등 홍콩 매체발로 제기됐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한다.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다. 당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질 당장 개정을 통해 시 주석의 당내 절대적 권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당 대회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 베이징은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 배순호 기자

구글, 내년 일본에 첫 데이터센터 오픈

구글이 2023년 일본에 첫 데이터센터를 오픈한다고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일본 지바현 인자이시에 들어서는 이 센터는 구글이 2024년까지 일본에 투입하기로 한 7억3천만 달러(1조원) 규모 투자의 일부다. 이 시설은 대만과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구글의 세 번째 데

이터센타다. 피차이 CEO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새로운 시설은 구글의 툴과 서비스 운영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제 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년 만에 일본을 찾은 그는 2019년에는 구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 김성민 기자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품에서도

함께 웃어요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도



땅끝 섬마을에서도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활력이 넘치는 한국 금융의 허브에서도

본 광고는 우체국 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10월은 축제의 계절’…부산 곳곳서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3년 만에 재개된 대면 행사에 영화제 북적, 15일에는 BTS 콘서트

10월을 맞아 부산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잇따라 열리면서 부산 전역이 거대한 축제장을 빙둘케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축제 대면 프로그램이 3년 만에 전면 재개되면서 시내 곳곳에 모처럼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서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4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영화 팬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정상 개최된 행사를 5천장에 달하는 개박식 입장권이 순식간에 매진되고, 관객들이 빠르게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되며 기대감을 모았다. 한글날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황금연휴 사흘 동안은 주 무대인 해운대와 남포

동 일대에서 영화배우와 감독들의 관객 만남 행사가 이어지면서 많은 영화 팬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71개국 243편의 영화가 30개 극장에서 쉴 새 없이 상영되고, 올해는 지역 밀착형 사인 ‘동네방네 비프행사’가 부산 17곳에서 확대되면서 부산 전역이 영화 팬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금정구 범어사, 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 서구 송도오션파크, 수영구 밀락더마켓, 동구 북항 친수공원과 차이나타운 등 부산 도시 정체성과 역사성을 갖춘 곳에서 행사가 열리며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준다.

내주 주말인 15일에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무료 콘서트

가 열릴 예정이라 부산을 들썩이게 한다. 5만여명의 전 세계 아마(방탄소년단 팬클럽)가 부산에 집결할 것으로 예고되며 전세편 항공기가 추가로 뛰고, 도시철도와 KTX가 증편 운영되는 등 관련 업계도 행사 준비에 분주하다.

발 빼르게 관련 이벤트를 준비한 호텔들뿐 아니라 모텔과 소규모 숙박시설까지 예약이 꽉 차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자체가 준비한 축제들도 잇따른다. 부산역 일대 차이나타운에서는 14~16일 거리 전역에 흥등이 내걸리며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14~16일 광안리 해수욕장과 수영사적 공원 일대에서는 민속체험과 어방그물끌기, 드론 라이트 쇼, 각종 체험행사를 즐

길 수 있는 광안리 어방축제가 준비됐다. 남구에서는 야간 관광 테마를 주제로 ‘용호별빛 축제’가 13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지고, 같은 기간 동래읍성 북문 일대에서도 ‘조선 동래를 만나다’는 슬로건으로 역사교육형 체험 축제가 펼쳐진다.

축제는 이달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 21일에는 서구에서 ‘부산고등어축제’가 열리고, 22일 중구에서는 부산국제가요제가 펼쳐진다.

27일부터 사흘간은 부산시가 주최하는 케이팝(K-POP) 축제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열린다.

30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메인 콘서트는 마마무, 강다니엘, 브레이브걸스, 르세라핌, 유주 등 13팀의 유명 가수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알려져 케이팝 팬들의 설레게 한다.

/ 고광복 기자



새옷 갈아입은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전국에 널리 알려진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이 새 그림으로 관광객들을 맞는다.

통영시는 8일 새 벽화를 알리는 ‘렛츠고(Let's go) 동피랑 2022’ 개막식과 동피랑 마을잔치를 했다. 동피랑은 ‘동쪽 끝에 있는 높은 바랑’(비탈의 사투리)이란 의미다.

통영 시가지 중심지 강구안 언덕에 위치한 달동네가 동피랑이다. / 김채원 기자

동피랑은 한때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2007년 지역민들이 집집장, 벽에 벽화를 하나씩 그리기 시작하면서 미술이 살아났다.

입소문, SNS를 타고 동피랑 벽화마을이 이른바 ‘사진발’ 잘 받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는 이색 명소가 됐다. / 김채원 기자

‘마틸다’ ‘캣츠’ 가족 뮤지컬 잇달아 무대에

20~30대 마니아 관객 위주인 국내 뮤지컬 시장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과 중장년을 겨냥한 뮤지컬이 찾아온다.

이달 5일 서울 구로구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개막한 뮤지컬 ‘마틸다’는 아동문학의 거장 로알드 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 4년 만의 국내 재공연으로, 초연 당시 어른부터 아이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련된 동화 같은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9~11세의 아역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오디션을 통해 뽑힌 아역 배우들과 베�테랑 뮤지컬 배우들의 연기 호흡이 관전 포인트다.

‘캣츠’는 12월 22일 경남 김해를 시작으로 세종(12월 30~2023년 1월 1일), 부산(1월 6~1월 15일), 서울(1월 20~3월 12일)에서 관객과 만난다.

서울시뮤지컬단 김덕희 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뮤지컬 관객층이 주로 20~30대 여성이라면 50대 이상의 관객이 즐길 작품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백혜련 기자



1896년 창간된 ‘대조선독립협회회보’와 1908년 창간된 우리나라 근대 종합잡지 효시 ‘소년’(왼쪽)

126년 국내 잡지 역사 한눈에…내달 첫 ‘잡지주간’ 행사

전시·콘서트 등 다채…잡지협회 “매출 줄어도 전문지 5천800종”

126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잡지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잡지주간 2022’ 행사가 처음 마련된다.

㈔한국잡지협회(백종운 회장)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열흘간 ‘잡지주간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제3차 정기간행물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하면서 잡지의 날(11월 1일)이 포함된 기간을 잡지주간으로 처음 지정했다. 올해는 잡지협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다.

잡지주간의 집행위원회를 맡은 백동민 잡지협회 수석부회장은 “잡지산업 매출은 2000년대 초반 해도 2조 원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7천500억 원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다”며 “하지만 독자층이 세분화하며 종수가 늘어나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마니아층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문 잡지는 5천 800여 종이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잡지주간 행사는 ‘잡지가 있는 삶’을 주제로 근현대 잡지 특별전, 제15회 잡지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전시회, 제57회 잡지의 날 기념식, 매거진 콘서트, 코리아 매거진 콘퍼런스

등으로 꾸며진다.

근현대 잡지 특별전은 ‘오늘, 당신의 잡지’란 주제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오는 28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열린다. 최초의 잡지 형태로 1896년 창간된 ‘대조선독립협회회보’와 1908년 창간된 우리나라 근대 종합잡지 효시인 ‘소년’을 비롯해 150여 종의 근·현대 잡지가 전시돼 시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회 잡지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시는 한국잡지정보관내 M미술관에서 오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독자가 잡지를 주제로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 중 우수 작품을 시상하고 전시하는 행사다.

잡지의 날 기념식은 11월 1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매거진 콘서트는 11월 5일 서울 송파구 책박물관 어울림홀에서 열린다. 코리아 매거진 콘퍼런스는 11월 1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4차 산업시대 매거진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잡지협회 홈페이지(www.magazin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준호 기자

정부, 지자체, 지역민의 손으로 함께 완성하는 새로움 한조각

살기 좋은 경북을 위해 직접 나서다.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손보고 고쳐 새로운 공간과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재생.





GS 카드
GS 카드

스마트한 소비자의 슬기로운 주유생활 에너지플러스 앱!

바로주유 바로혜택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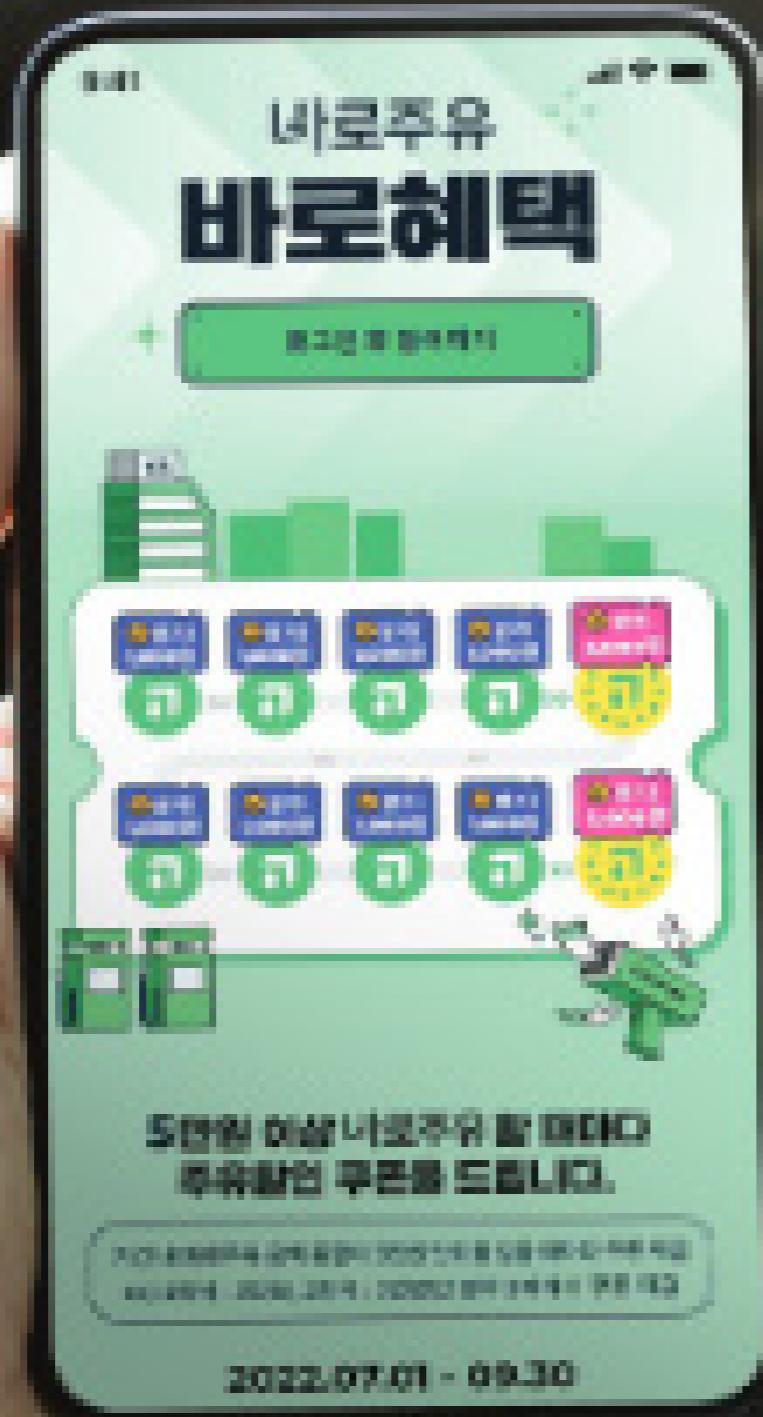
- ① 5만원 이상 바로주유 할 때마다
주유 할인금 1,000원 제공

친구초대 EVENT

- ② 친구들은 친구가 바로주유 등록하면,
친구도 나도 함께 할인
(주유할인금 3,000원 즐겨요)

스탬프 EVENT

- ③ 일정 기간 사용 시 제공하는 5개 스템프를
모두 모으면 결제 & Point 1,000포인트 지급



고객센터: 1588-XXXX | GS 카드 고객센터: 1588-XXXX

e+ energy plus



에너지에 끌어당겨 데려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가는 차량과 에너지 서비스 제공



에너지에 디지털을 더해다
차량운행, 주유결제 등으로 운행을 알아가는 에너지 서비스 제공



에너지의 Mobility & Life를 더해다
모바일 앱으로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 제공
터미널, 푸드존, 미니마트, 편의점, 배달 서비스 등



에너지의 혁음을 더해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가는 차량과 에너지 서비스 제공

2022 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

2022. 10. 14.(금) - 16.(일) / 3일간

한천체육공원 일원

행사프로그램

- 축제기간 농산물 할인행사, 건강체험한마당, 에어바운스 놀이터 운영,
각종 체험 및 레크레이션 등
- 첫째날 개장식, 전통놀이한마당, 라이브커머스
- 둘째날 군민화합퍼포먼스,
청소년을 위한콘서트 (강남X군조, 레이나, 에이블루, 크롬하츠)
- 셋째날 뷰티라인 시니어모델 패션쇼, 우수 농산물 시상식